

물이 된 서

자급자족 '전천후 서'



▲약산도 곳곳에서는 방목되고 있는 흑염소를 쉽게 볼 수 있다. 1324세대 2472명의 주민이 흑염소 300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블루오션' 다도해 <32>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완도편 - 고금도·약산도



완도에 속해 있는 꽤 큰 섬 가운데 전북 생산량이 가장 적은 곳은 고금도일 것이다. 고금도는 강진과 고금대교로 연결돼 있는데, 오히려 완도군에서 가려면 선박편을 이용해야 한다. 완도읍에서 신지대교를 거쳐 신지면 송곡항으로 간 뒤 눈 앞에 보이는 고금도까지 10분 간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하지만 신지~고금을 연결하는 다리로 2018년 완공예정이라서 조만간 송곡항은 물론 선박회사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완도읍과 신지도, 고금도, 약산면은 물론 강진군이 연결되면서 이들 섬의 '육지화'가 더 신속해 지는 것은 자명하다.

완도의 동쪽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신지도·고금도·약산도는 강진군, 장흥군과 지척의 거리에 있고 연결까지 돼 있어 '물' 분위기가 물씬 난다. 2364세대 460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층이 1851명으로 인구의 5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있다. 출생율은 낮아지고, 젊은층은 물으로 나가면서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완도군의 11.3%를 차지하는 46.53㎢ 면적의 고금도에는 한우 4700두를 키우는 170농가가 있다. 미국 495가마(40kg), 맥류 840가마(40kg)를 생산하고 특산물인 유자는 381가구가 66ha를 경작중이다. 반면 완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전북 생산량은 42t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다시마 1670t, 미역 9200t은 물론 매생이, 석화, 갈매, 재래식 김 등이 상당히 나고 있다.

유인도 2곳, 무인도 13곳 등으로 구성된 고금도를 '물'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금도의 자원으로는 묘당도의 총무공 이순신 장군 유적지 총무사가 있다. 지금까지 1761만여명이 본 영화 '명량' 덕에 총무공의 마지막 본영이자 83여일간 유해가 봉안됐던 이곳 역시 과거보다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방명록에는 전국 각 지역의 주소와 함께 '별사봉공'의 상징인 총무공을 기리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추모글을 읽어 내려가다보니 어느 시대건 원하는 지도자의 '상'은 비슷하지만, 그러한 지도자는 극소수라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총무공은 약산도와 신지도, 완도 본도에 둘러싸이고 내륙(강진)과 가까운

신지~고금교 2018년 완공 예정

완도읍·신지·강진까지 연결
한우·흑염소·유자·생약초·곡류
다시마·미역 등 해조류 생산
진달래공원·동백숲 해수욕장
'총무공 마지막 본영' 발길 늘어

고금도를 쫓겨가는 왜군을 섬멸할 본진으로 삼았다. 수산물도 물론 농축산물까지 풍부해 진린 장군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까지 주둔해도 견뎌내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이 총무공의 '흔'이 서린 이곳은 지난 1960년 1월 29일 사적 114호로 지정돼 보수하고, 이후 2003년부터 발굴조사, 복원, 정비, 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총무공 영정의 동쪽에 있는 동무의 지붕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등 고금도에서도 외진 곳에 자리하며 제대로 주목받지도, '대접'받지도 못하고 있었다.

고금도에는 고인돌공원도 있는데 그곳에는 지석묘 87기가 있다. 남방식과 개석식이 주를 이루고, 가장 큰 것은 길이가 470cm이며, 300cm 이상도 14기나 된다. 도서지방의 최대 밀집지로, 이 섬은 먼 과거에도 사람들이 모여살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었다. 인위적인 시설로는 세동방조제가 있다. 아마도 갯벌과 바다보다는 농업용수와 논·밭이 더 중요했던 시기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상당한 면적의 갯벌과 바다를 막은 관산방조제가 약산도에도 있다. 주민들은 지금에 와서 조금 후회하는 것 같다.

고금도는 1999년 약산도와 연도됐다. 약산도 역시 면적 28.74㎢(완도의 7.5%)로, 1324세대 2472명의 주민이 사는 꽤 큰 섬이다. 조금씩이지만 주민도 늘고 있다. 흑염소 3000여두가 곳곳에서 보이고, 삼지귀엽초, 더덕 등 생약초가 19.7ha에서 자라나다는 것이 약산도의 명칭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약산도 우두리방조제. 20여 년 전 농업용수 마련을 위해 갯벌을 간척했으나, 갯벌이 사라지면서 소득도 줄자 주민들이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외에도 쌀이 1년에 1180t이 생산되고, 매생이(760t), 미역(2만5216t), 건다시마(1482t), 건청각(297t) 등 해조류는 물론 납지(590t)와 전복(446t) 양식까지 가능하다. '전천후 섬'인 셈이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지난 2월 6일 취임한 정인호(48) 면장은 "약산대교가 생기면서 고금도와 마찬가지로 물의 성격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리가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선박편이 끊긴 후 숙박수요가 있었고, 그로 인해 관광객이 머물렀는데, 다리가 생긴 뒤 숙박 관광객은 크게 줄었다. 관광 측면에서는 가져가는 곳이 된 것이다.

흑염소 식당에서 만난 양장인(66)씨는 서울·광주에서 지내다 5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 미역과 전복 양식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약산의 가장 큰 장점을 "바다와 육지가 모두 운택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산도에 5만평에 이르는 공간에 매년 불이되면 철쭉이 피는 진달래공원, 동백숲을 배경으로 한 가사 해수욕장, 399m 높이의 삼문산과 그 등산로 17km 등의 볼거리를 지니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부장

eichung@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붕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 총무사의 동무. 영화 '명량'의 인기덕에 찾는 이들이 늘고 있으나 관리 부실로 눈살을 찌푸르게 하고 있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패턴, 대리석시공, 홍나무, 스텔라티쉬, 석양, 석양(대형패턴)

시공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